

2021년 6월 21일

지사메시지

- 오카야마현 지사 이바라기 류타입니다.
- 6월 21일 본현의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었습니다.
현민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최선의 전력을 다해 주신 결과로써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.
- 현내 감염상황은 현재 2단계까지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여러 가지 부락을 드렸던 모든 것을 완료하게 되면 의식이 한꺼번에 풀어져, 감염 재확산·리바운드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.
- 그리하여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를 「재확산 방지 강화 기간」으로 정하여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요청을 드립니다.
- 주요 내용은 다음 2가지입니다.
- 첫 번째는 오카야마시 모든 지역의 음식점에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청합니다. 주류 제공은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합니다. 또, 기간은 간사이권이나 현내의 감염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상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.
- 두 번째는 외출의 50%삭감 등의 5가지 「오카야마 규칙」이나 식사 때 마스크 착용으로 유쾌한 식사(快食) 등의 「마스크 코드」를 정했습니다.
현민 여러분에게는 부디 실천을 해 주셔서 재확산 방지에 협력을 당부드립니다.
- 현민 여러분, 사업자 여러분에게는 조금만 더 부담을 드리게 됩니다만,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.